

이커머스업계, 역직구 시장 주목 국내 셀러 해외진출 문턱 낮춘다

G마켓 글로벌 판매 시스템 고도화
11번가 징동닷컴 직구 플랫폼 연계
무신사 '몬스터 세일' 역대 최대실적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가 역직구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낙점했다. 해외에서 K-뷰티와 K-패션 수요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이커머스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물류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국내 셀러들의 해외 판매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K-콘텐츠 확산에 힘입어 해외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역직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역직구 시장은 계속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억 245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1억 2688만 달러)보다 77.0%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집계 이후 월간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국내 주요 플랫폼들도 해외 현지 이커머스와의 시스템 연동과 물류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국내 셀러들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G마켓은 라자다와 공동으로 글로벌 판매 시스템을 고도화해 해외 진출 장벽을 낮췄다. G마켓을 통해 해외 판매를 하고자 하는 국내 셀러는 상품을 인천 소재 G마켓 물류센터까지만 보내면 되고, 이후 국제 배송과 통관, 고객응대(CS) 등은 G마켓과 라자다가 전담하고 있다. 현재 총 1만 7000여 명의 국내 셀러가 글로벌 판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동 판매 상품 수도 지난해 말 700만 개에서 최근 3000만 개로 늘었다.

11번가도 징동닷컴의 해외직구 플랫폼 '징동월드와이드'와 연계해 징동로지스틱스가 입고부터 통관, 국제배송, 현지 배송까지 물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외 판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특화 카테고리 내세운 플랫폼들의 글로벌 성과도 두드러졌다. 특히 K-문화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뷰티와 K-POP 관련 상품의 약진이 눈에 띈다.

무신사는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진행한 글로벌 '몬스터 세일'에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155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K패션 브랜드의 판매 호조에 더해 글로벌 스토어 내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62% 증가하며 실적을 견

인했다. 이커머스 업계가 역직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터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3년 227조 3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42조 897억원(5.8%), 2025년에는 272조 398억원(4.9%)으로 증가율이 점차 낮아졌다. 반면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은 2025년 3조 234억원(16.4%)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인기와 힘입어 뷰티와 패션을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해외 수요가 확대되면서 역직구 시장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2024년, 2025년 가장 많은 판매액을 기록한 상품군은 뷰티로, 매년 전체 직접판매액 중 평균 58.83%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역직구에서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품목은 뷰티"라며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려는 셀러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이 지난 29일 대전 본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

정창진 "원자력원료, 완벽한 품질관리 필수"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원전 원료 100% 기술자립 달성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로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한전원자력연료. 대한민국 원전에 들어가는 모든 핵연료를 전량 생산하는 이곳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원료 전문회사다.

지난 29일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반도체 칩을 하나 만드는데 '일레븐 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400개가 넘는 공정을 거치며 숫자 9가 11개가 있을 정도의 초고순도의 칩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원자력원료도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진다"며 "원자로 안에 2000만 개 가까이 들어가는 펠릿이 발전을 하면서 전혀 문제없이, 손상 하나도 없이 계속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만큼 완벽한 품질 관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한전원자력연료의 가장 큰 자부심은

원전 연료에 대한 '100% 기술 자립'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미국 등 해외 기업에 노심 설계나 엔지니어링 서비스 로열티를 부르는 대로 줘야 했으나, 이제는 독자 기술을 완벽히 확보했다. 나아가 원전에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직원들이 장기 출장 형식으로 상주하며 사용 후연료 검사 및 수리 등 종합 연료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사고저항성연료(ATF)' 개발에서도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이미 지난해 새울 원전에 시험용 연료를 장전해 성공적으로 연소 시험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31년 인허가를 완료해 국내의 가동 원전에 본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임금체불 제재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시행
연 1회 1~2주 단기 육아휴직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 간 외환시장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 24시간 가동된다. 10월부터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유리한 요금제가 추천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역·벌금형이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담겼다.

재정경제부 소관의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현재 은행 간 외환시장이 열리

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 등은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언제든지 원화를 사고팔 수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오는 10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최적요금제 고지'가 시행에 들어간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문자나 이메일 등 본인이 선택한 수단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올라간다. 현행법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0월부터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 역시 동일하

게 상향된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 또는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해당된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뒤 직원을 새로 채용하더라도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된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는 강화된다.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3개월분까지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6개월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일주일만 쓸 수 있게 된다. 8월 20일부터 연 1회 1~2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만 8세 이하의 아이를 둔 근로자가 방학이나 휴원·휴교·질병에 따라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K-미식 체험·관광 프로그램 확대

송미령 장관, '우리들의 밥상'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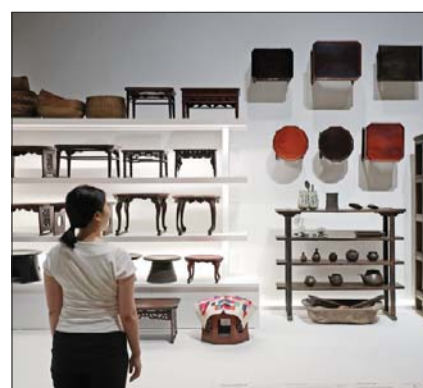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K-미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도려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개막식에 참석해 '박물관의 식문화 특별전과 시너지를 발휘해, 방한 관광객들이 한국의 맛과 멋을 깊이 있게 즐기고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가 올해 하반기 'K-미식 여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K-차킨벨트, 찾아가는 양조장, 식품명인, 한식 페스타 등 대한민국 전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미식·관광 콘텐츠를 본격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찾는 전세계 관광객들이 우리 음식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관광



국립중앙박물관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부,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 조정

비상수급조치 종료·완화 절차 돌입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중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 전쟁 발발 이후 가동했던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 절차에 돌입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1일 자정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수송시설의 타격 여파와 진존하는 불안 요인을 고려해 원유 위기경보는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주의' 단계로 유지하며

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위기 경보 완화에 맞춰 2주간 한시적으로 가동됐던 비상조치들도 대거 6월 30일자로 종료된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을 비롯해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비축유스와프 제도는 예정대로 일몰된다.

정부는 향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및 정유사들과 협업해 일일 도입 동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시장 교란 행위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이 전면 정상화되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전력, 여름철 낙뢰 대응체계 강화

피뢰기 설치 확대... 설비 지속 점검

한국전력이 여름철 집중되는 낙뢰로부터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낙뢰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한전은 30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함께 증가하는 낙뢰에 대비해 전국 주요 송전선로에 피뢰기를 설치하고 전력설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06년부터 약 1800억 원의 재원을 집중 투입해 송전철탑에 송전선로용 피뢰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

다. 현재 전국 154kV 송전선로의 피뢰기 설치율은 99% 수준에 이른다.

피뢰기 설치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이후, 송전선로의 낙뢰 고장 건수는 연평균 249건에서 88건으로 급감했다. 약 65%의 저감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이는 낙뢰로 인한 송전선로 고장 3건 가운데 2건을 완벽히 예방해 낸 수준이다.

한전은 앞으로도 여름철 낙뢰 등 기상 영향으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뢰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실시간 설비 감시와 예방점검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